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3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5일 (음력 5월 22일) 목요일



## Photo 漫評

### ‘사법’ 살인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각종 사찰과 압박을 받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일 ‘사법부가 독재정권 정보기관이나 할 짓을 했다’며 “관련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전 회장은 서울 서초동 개인변호사사무실에서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의심만 했던 압박정황들이 대법원의 처벌한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 너무 충격적이고 허탈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지신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문건을 직접 봤다고 한다. 하전 회장은 “사법부의 행태는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런 짓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글=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스시스



하창우



양승태



하창우

## 대학 역량평가 후폭풍...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대상에 광주·전남 지역 상당 수 대학이 포함되면서 퇴출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부정·비리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이 탈락할 경우 추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어 2단계 평가에 각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4일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조선대와 순천대, 남부대, 세한대, 송원대, 한려대 등이 1단계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해 2단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2015년 실시했

### 조선대·순천대·남부대 등 2단계 심사 올인 최하위 등급 평가 정원감축·재정지원 중단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으로 ‘살생부’ 성격을 띄고 있어 호남 최대 사학인 조선대와 국립대인 순천대의 충격은 어느 곳보다 크다. 1주기 평가에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던 서남대와 대구외대, 한중대 등은 퇴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폐교됐다. 이번 2단계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해당하는

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돼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대는 1단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처장단 회의와 교무위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2단계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혁신이 예상된다.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선대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3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전원 백의종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2단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모든 구성원이 근무년수로 차등을 뒤 급여를 평균 30% 이상 삭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3년 전통의 국립대인 순천대학교도 기사 회생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당장 올해 수시지원에서부터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2단계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추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이나 집행부 간부들의 부정·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시키고 그 빈 자리에 추가 대학을 포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대학 퇴출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안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대학 살리기에 나섰다.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퇴출 가능성이 큰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를 회생하기 위한 건의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학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장학금 지원, 전남도·광양시·대학 간 정상화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책위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대학교는 단순히 인재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실물경제 활성화 등 도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 상황에서 대책위의 건의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2단계 최종 평가 결과를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Beautiful Yeosu, Happy Citizens

## 제27회 전라남도지사기 및 제5회 전라남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여성게이트볼축제

2018. 7.10 (화)~11(수)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경기장

개회식	7.10.(화) 오전 10:30, 진남경기장
일시	(1일차) 2018년 7월 10일 (2일차) 2018년 7월 11일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경기장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주체/주관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여수시게이트볼협회
후원	전라남도체육회, 여수시, 여수시체육회



물놀이 하는 초등학생들

장마가 떠나고 무더위가 찾아온 4일 전북 전주시의 평균 온도가 영상 30도를 웃돌며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천세암공원을 찾은 평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전남도, 적조 선제적 대응 비상체제 돌입

### 이달 초 출현 전망...대책상황실 운영

전남도는 7월 초 적조 출현 전망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2018년 적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5일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조 재해대책 상황실에는 해양수산과학원,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이 총괄하고 그 밑에 예찰반, 총괄반, 상황대책반, 지원반 등 4개 반 12명이 적조 특보상황 관리, 방제대책 추진, 피해량 조사, 폐사 어류 처리, 피해 복구계획 수립, 상황관리 및 전파, 인력장비 배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각 기관별로 협업을 통해 적조 예방 상황 관리와 효율적 방제 대책 추진 등 총력 대

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발생에 대비해 전 해수 황토살포기 등 공공방제장비 15대와 산소발생기, 저층해수공급장치 등 개인장비 454대, 황토 7만 4000t 등을 확보했다. 전 해수 살포기는 해수 전기분해로 생성된 산성수와 알칼리수에 황토를 혼합 살포해 적조 구제효율을 극대화하는 장비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56일간 적조가 발생해 188억 원, 2016년 14일간 발생해 3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2017년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 이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적조에보에 따른 상황 발생 위기대응을 위해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